

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시 73:28)

NEW
순복음Life
제68호

발행일 : 2021.12.12.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육동단 헌납에배운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얻으며 살아왔으며
그 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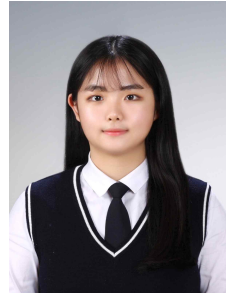


Merry Christmas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학생회 유진경입니다. 고등학교 3년을 지내며 저와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와 기숙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1번으로 삼지 못했고, 성경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주님을 우선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코로나로 인해 늦게 시작한 2학년 때 성전 밝기를 하는 원준이를 본 큰언니의 권유로 저와 진희도 성전 밝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증을 써 보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저는 간증할 일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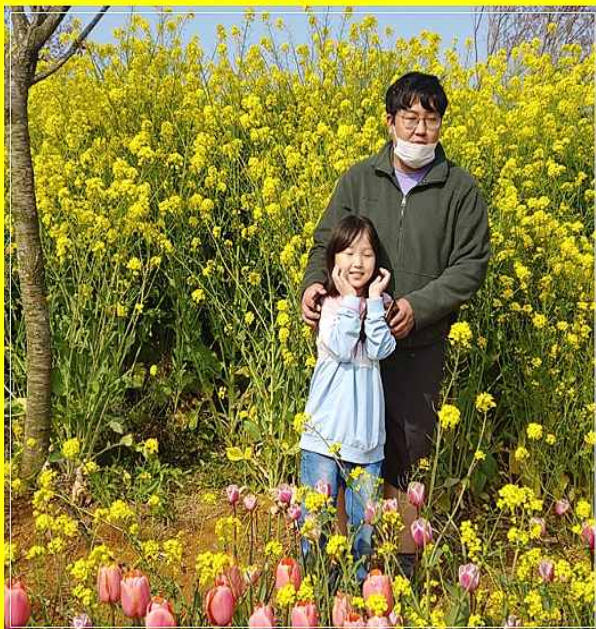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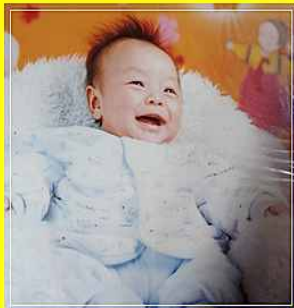
먼저는 성전 밝기를 하기 위해서 학교 저녁 시간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서 야자를 하지 않게 되면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게 된 저는 쉬는 시간을 활용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녀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담당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안 좋은 시선으로 왜 가냐며 저와 진희를 나무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인식이 안 좋아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시선의 변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1학기가 끝나고 2학기에는 저희가 교회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던 선생님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른 선생님이로 바뀌었고, 바뀌신 선생님께서 저희를 바라보던 시선에 변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성전 밝기를 하며 불편했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또 한번 저는 3학년 새 학기에 동아리를 정하는 시간에 처음으로 공학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가 없어 동아리 결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었습니다. 동아리를 갑자기 정하는 상황에서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성전에 올라가 바로 주님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동아리를 다시 정한다는 학교의 메시지를 받았습시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동아리를 다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없어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께서 오셔서 동아리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생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대입에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원서를 넣기 몇 주 전부터 6개의 대학교를 모두 정하고 더 이상의 대학교들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원서 넣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전에 정했던 대학들보다도 더 가능성이 있고 다자녀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교는 제가 원하는 1지망 이 되었습니다. 이 대학교 면접이 10월 초에 잡혀 있어서 급하게 면접 준비하고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오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서 떨어질거라는 생각을 하며 당진에 왔습니다. 그러고 결과가 나오기 2주 전에 전수현 집사님께 간증을 써볼래? 라는 말을 들으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12월 지나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서는 될 거라고 하시며 기도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증을 써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밝기도 열심히 하고 합격을 위해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 가정이 4자매가 된 것부터 현재의 합격이라는 길까지 치밀하고도 세세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설교를 통해 이 구절을 알게 되었고 이 구절이 저에 고등학교 생활을 표현하기에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했고 2학년 때부터는 거의 매일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얻으며 살아왔으며 그 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순복음교회 밀알청년회에 소속 김상윤 청년입니다.

2.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성신로직스라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니면서 제품 검사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3.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장점: 긍정적이다

단점: 소심하다. 낮가림이 심하다.

4. 가장 최근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제가 취업을 한지 2개월 만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뭐라 안하시고 믿어주셨을 때 감사했습니다.

5. 우리 가족 자랑해주세요.

일단 어머니는 상냥하세요. 남의 말에 호응을 잘 해주셔요.

아버지는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착하세요. ㅎㅎ

상우는 뭐든 적극적이고 낮을 잘 안가려요.

지아는 그림을 잘 그려요.

6. 성도님은 꿈이 무엇인가요?

제 꿈은 하나님 잘 믿으며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여유롭고 떳떳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7.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점은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많지만 화를 못 참는 것과 말을 할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시하는 것입니다.

8. 동생들과 단란한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형으로서 오빠로서 동생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고민을 마음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9.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여 본인을 칭찬해 주세요.

상윤아~ 너는 매사에 긍정적인 모습이 참 보기 좋다.

10. 부모님은 성도님에게 어떤 분이세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1. 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부탁하고 싶은 말씀 해 주세요.

상우야~ 형이 말하는게 서툴러서 너한테 말할 때 화를 내지만 너 잘 되라고 하는거 이해 해 줬으면 좋겠어.

지아야~ 오빠가 가끔 주말에 내려가면 힘들다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12. 부모님께 어떤 아들 되고 싶어요?

듬직하고 믿음직한 아들이 되고 싶네요. (아직은 좀..)

13. 찬양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4. 성도님의 취미생활은 무엇인가요?

취미는 친구들과 맛집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15. 교회에 형,동생들 그 외에도 집사님들 등 많은 어르신들이 있으신데요. 성도님이 보기에 가장 멋있어 보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든 분들이 다 멋있으시고 훌륭한 믿음을 보이시는데 그 중 고르라면 저는 연훈형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6.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신다 느꼈던 적은 언제였나요?

제가 고2때 입니다. 학교에서 안경알이 깨져서 좀 심하게 다쳤는데 상처 부위가 조금만 위였으면 눈을 크게 다칠 뻔하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17.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일단 지금은 일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지만 우선 맡고있는 사역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8. 사랑하는 여동생의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세요.

김 : 김상윤 동생 김상우랑

지 : 지아야~ 오빠, 형으로서 말하는데

아 : 아프거나 고민거리가 있을 땐 나한테 꼭 말해주라~

걱정시키지 말고~ 그리고 내 말 좀 잘 들어주지 않을래? ㅎㅎㅎ

19. 나는 ()에게 참 고맙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괄호를 채워주세요.

나는 상우에게 참 고맙다. 왜냐하면 그 정도 화를 내고 뭐라 하면 대들만도한데 그래도 형이라고 안 대들어서이기 때문이다.

2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성도님이 되기 위해 라이프지를 통해 성도님들께 약속하고 싶은 실천사항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성질을 죽이겠습니다.



권찰일기

박봉녀 권찰

2021년 11월 21일

밤새 뒤흔치다 새벽에 겨우 잠들어 아침에 눈을 뜨니 몸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안 아픈데가 없었다. 전날에 긴장한 것이 너무 힘이 들었는지 몸이 너무 무거웠다. 오늘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하지만 몸이 힘들다보니 순간 탄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늘은 쉬고 싶은데 가지 말까?"

몇 번을 고민 끝에 마음속으로

"아냐! 교회 가야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예배 드리러 갈 준비를 하였다. 오늘은 늦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20분 더 일찍 집을 나서 교회에 도착하였다. 예배를 마치고 차에 올라타서 원희에게 전화를 걸려고 보니 기지초등학교에서 긴급 문자가 몇 개씩이나 와있는 것이었다.

문자 내용은 4학년 학생 1명이 확진자가 발생하여 4학년 전체가 코로나검사를 받으라는 문자였다. 원희가 검사도 받기 전에 벌써부터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원희를 할머니 댁에서 태우고 오면서 문자 온 내용을 설명하는데 원희는 얘기를 다 듣기도 전에 겁을 먹고 무섭다고 검사받기 싫다고 울먹이고 있었다.

난 원희를 다독거리면서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하고 안 받을 수 없으니 한번만 꼭 참고 받으면 된다고.... 우리 아들은 잘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다. 우선 집에 도착해서 구옥순 집사님과 장명희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 상황설명을 하고 저녁 찬양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어 보고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계신 시누이에게 전화해 설명을 하니 시누이께서 접수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았다. 원희를 데리고 검사를 받으러 시청으로 가면서도 원희는 계속 나에게 물었다.

"엄마! 많이 아파? 느낌이 어때?"

그래서 난 원희에게

"원희야 와사비 먹어 봤지? 그 느낌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동안 시청에 도착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곳에 원희 친구들도 먼저 와있었다. 순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이 또한 관련된 모든 이들이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부족한 기도를 하는 동안 드디어 원희 차례가 되어 검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하나님의 인도로 겁 많던 원희가 잘해준 덕에 검사는 금방 끝날 수 있어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원희가 검사를 마치고 차로 돌아가면서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기에 뭐냐고 물어 보았더니 원희가 하는 말이

"엄마!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제발 코로나 검사 한거 음성 나오게 해달라고"

이 말을 듣고 나는 원희가 너무 기특하게 보였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동을 하는 아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아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였다.

원희를 집에 데려다주고 찬양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가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 합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았다. 오늘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았다. 왜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지 내 자신이 한심해 보였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나의 한심한 것에 대해 고백하며 기도드리고 제발 원희의 코로나 검사가 음성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 한다.

봉녀야! 내일도 파이팅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큰 숨 한번 내쉬었더니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끝없는 광야에 척박한 땅을 지나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해 성도는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삶이란 고난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너희도 이와같이 행하라" 주님의 명령하신 음성 앞에서
자족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게 주어졌지만 내 것이 아니어야하고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처럼 다스려 나가는 사명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이 앞길을 막았지만
21년"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란 은혜를 방패 삼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심도,
팬데믹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하셨음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불꽃같은 눈동자로
내일을 약속하신 내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성도는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였고
서로의 소통속에서 신망애로 성도간 화평을 이루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쳐 흐릅니다.

육신의 욕망 앞에 비굴하지 않으며
사망의 우거щем에도 머리고를 향해 하나 되어 외쳤던 함성처럼
22년"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슴을 넓게 펴고
더욱 당당하게 오늘도 성도들은 여호와 닮기로
하늘을 가르겠습니다. 아멘

웃으십시오!

김성령 청년

이 분은 누구일까요?

매주 주일예배와 수요일저녁예배에 준비 찬양 싱어로 섬니다. 찬양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성전 문 앞에서 발열 체크 봉사합니다. 주일 학교 교사입니다. 드림 율동팀 팀장입니다. 날마다 성전을 밟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입니다.

모두 아시죠? 네, 김성령 청년입니다. 말은 일이 좀 많죠? 회사 다니라 틈틈히 공부하라

바쁠텐데 모두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기뻐서 하는 사역이니 얼굴은 온통 만족하는 미소가 떠나지 않네요.

항상 씩씩하게 명랑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김성령 청년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으실테죠. 또한 주님의 몸 된 우리들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리 없겠지요? 모두에게 본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일꾼들이 더욱 늘어나겠지요? 우리 교회에는 김성령 청년처럼 일당백의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네 삶을 준비하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와 순종의 삶이 충만한 김성령 청년의 이런 모습들이 축복받을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초등부 소식>

11월 첫눈이 내리고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열정은 어느누구도 막을 수 없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한 달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다니엘 유초등부는 첫째 주부터 추수감사절 찬양대회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담당 선생님께서 곡을 골라 주시고 반주 선생님이 함께 반주에 맞추어 찬양 파트도 나누어 부르고, 중간에 많은 동작은 아니어도 작게나마 율동도 함께 준비하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엔 곡을 잘 외우지 못해 악보를 보고 하겠다던 친구들이었지만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연습을 하며 자신감이 붙다 보니 악보 없이도 찬양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고 나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도 있어 걱정을 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다른 친구들과 섞여 열심히 연습에 임해준 새로운 친구의 모습과 모든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흐뭇한 찬양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잠깐의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마지막 주 성탄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게시판에 우리 친구들이 아기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정성어린 손편지와 아기자기하게 만든 소품들을 예쁘게 부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래에는 선물상자를 한 아름 포장해 진열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회손하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마음을 읽어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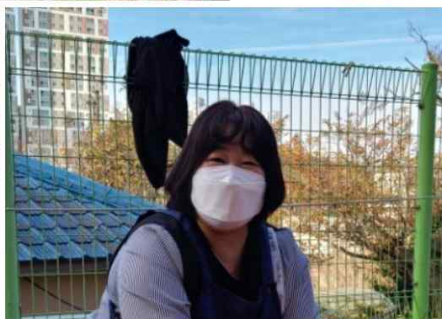
축수 감사 찬양





이모 저모

우리 교회 축제 올해도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주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김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어느때 보다 더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주신 협력해
주신 모든성도님을 감사드립니다



박기숙집사님의 헌신으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이전엔 맛보지 못한 돌이
먹다 다죽어도 모를 기막힌 맛 샌드위치를
맛보는날 다음번이 더기대돼요 ^^



하연이 딸기먹방

땡글 오렌지~사과~

사과같은 우리 아들
예쁘기도 하지요



★ 불평이 무서운 이유 - essay.263 -



★ 불평의 말은 그 자체가 퇴역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말들이 떠돌아 다니며 엄청난 퇴역을
저지르며 다닌다는 사실이다!

틀린 그림 찾기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서로 다른 곳 8개를 찾아보세요



성경퍼즐

1 천	2					
	3 기	4				
		5 사	6			
			7 동			8 북
						라
				9 다		엘
				10	11 팅	
				12	벨	

가로

1. 하나님의 조수로 일하는 나는 흰 날개를 가진 하늘의 00!
3. 하나님께 하는 00는 식사시간과 잠들기 전에는 꼭 해야 해.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해도 된단다.
5. 삼손이 맨손으로 잡았던 동물은? 동물의 왕이라고도 하지.
7. 나침반에는 0000네 군데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어.
9. 하나님의 힘으로 사자굴 속에서 살아 나왔던 청년의 이름은?
10. 대학생 형들과 누나들이 이성 교제를 위해 만나는 걸 00이라고 해.
영어로는 meeting!
12. 다니엘은 000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신회를 얻었다.

세로

2. 일하는 사람은 일꾼,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꾼, 그럼 사기를 치는 사람은 00꾼!
4. 옛날이야기 속에 나오는 도술 부리는 사람. 달인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해.
6. 수동의 반대말은 00! 한자로는 스스로 자와 움직일 동을 쓴단다.
8. 이스라엘은 남유대와 0000호 분열됐어.
9. 옷이 구겨지면 000로 펴고 걱정이 많아서 얼굴이 구겨졌을 때는 기도로 펴렴.
11. 피터팬과 함께 다니는 작은 요정의 이름은? 예수님 옆에 항상 천사가 있는 것처럼 피터팬과 000은 단짝이란단다.

<지난호 정답>

											1	시
												리
									2	마	리	아
								3	대	중		
									머			
								4	요	리	사	
								5	비	단		
								6	나	아	만	
7	엘	리	사									

<감동글>

세상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오래전 한 우편물 집배원이 달동네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집 앞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어 오토바이를 세운 뒤 종이를 살펴보니 수도계량기 검침 용지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달 수도 사용량보다 무려 다섯 배나 많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마음씨 착한 집배원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수도 검침 용지를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관이 새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 지난달부터 함께 사는 식구가 늘어서 많이 나왔나 보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식들을 출가시킨 후 외롭게 혼자 살던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고 의지할 데 없는 노인 몇 분을 보살피며 같이 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그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고, 빨래도 해야 해서 이번 달 수도 사용량이 유난히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음날부터 집배원은 점심시간마다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할머니를 도와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하구려, 젊은 사람이 기특하기도 하지.”

“네, 할머니! 내일 점심시간에 또 올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고 어느 날처럼 집배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그 집에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 앞에 오토바이가 석 대나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낯익은 동료들이 그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게. 자네가 점심시간마다 안 보여서… 이렇게 좋은 일을 혼자서만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앞으로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작은 민들레 흙씨가 퍼져서 민들레밭을 이루듯 우리의 나눔도 곳곳에 퍼져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릴레이

정현미 집사

제가 얼마 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출근하여 보니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베트남 자매 두 분이 있었습니다. 첫 인상은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분들이었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어 썸무언가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같이 일하던 중 이야기를 하다가 그중 동생이 가끔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 주세요!'

그 다음 날 자매는 비자 서류문제로 반차 쓰고 오후에 퇴근하더니 회사와 비자 문제로 다음 날부터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는 자의 기도를 항상 주목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

다음 주자 : 이성옥 성도님

유머

질문과 답변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초등학교 4학년 박한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 5가지를 써오라고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자하고 기린 밖에는 몰라요. 나머지는 생각이 나질 않아요. 뭐라고 써야 되나요?

답변: 사자3마리, 기린2마리 라고 쓰세요.



기드온

뜻 : 베히는 자. 이스라엘의 5대 사사. 므낫세지파 요나스의 아들.

1) 3백명 군대로 미디안을 격멸함 (삿 7:3-23).

2)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다 죽임(삿 8:12-28). 사사기 6장14-21절

기드온은 "벌채" 또는 "벤다"는 뜻이다.

므낫세지파 요아스의 마지막 아들이었다

(삿6:11).



그는 농장과 과수원을 가진 순수한 농부였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도 타작마당이었다. 그는 독실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할 때 기드온을 꼽고 있다(히11:32). 기드온은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 개인과 자기 가문을 가장 약하고 작은 자라고 소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인생의 여건보다 훨씬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허락하였다. 또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치듯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그때에 염소와 무교전병과 고기와 국물을 반석을 통해 드렸는데 여호와와 사자가 지팡이 끝을 재물에 대어 하나님의 응답을 불로 확인시켰다. 그러나 기드온은 다시 마당 위에 놓인 양털로 이슬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 후에 3만2천명 중에서 3백명을 선발하여 항아리와 햇불을 통해 미디안을 친 것은 큰 승리 중의 하나였다. 또한 바알의 단을 훼파하여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이는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으로 그의 영적 입지를 더욱 견고케 해주고 있다. 그러나 70명의 아들로 슬픈 기록을 남겼다.

▷교훈과 적용◁

첫째, 크게 타락한 시대에도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의인들이 남아있었다.

둘째, 기드온은 공적인 사명자로서는 성공하였는데 도덕적인 사생활은 본이 되지 못했다. 깨끗이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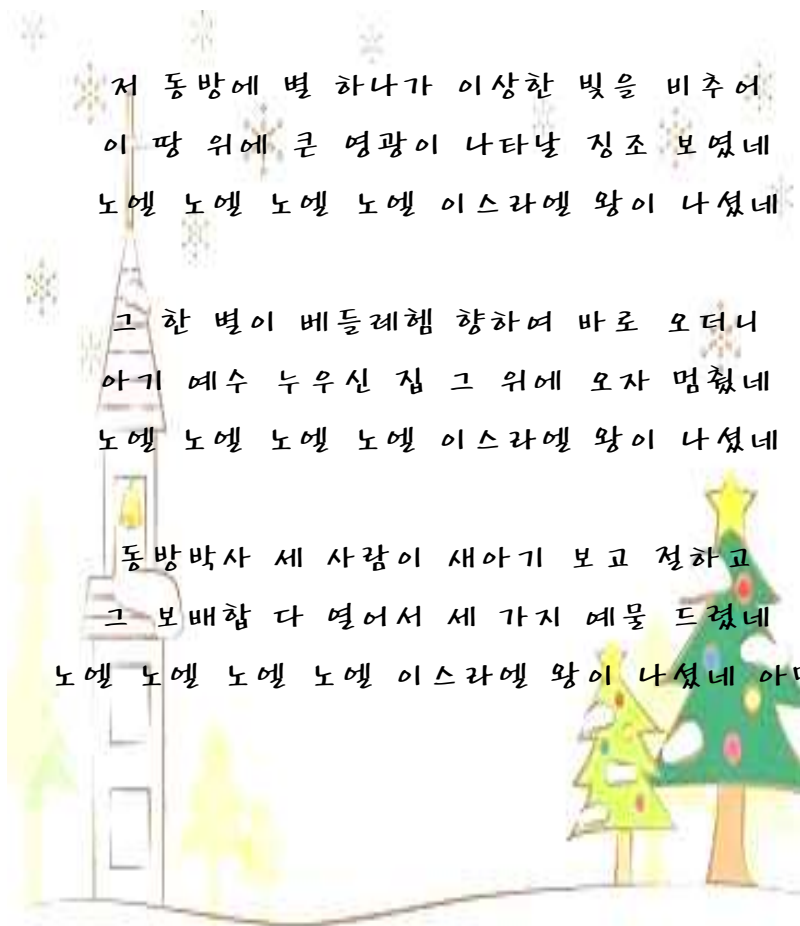
저 들밖에 한밤중에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노엘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코로나 관련 신조어

■ 작아격리

코로나19 사태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줄면서 살이 찌 옷이 작아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아격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집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금하고 외부접촉을 삼가는 ‘자가격리’와 그 발음이 비슷한 데서 만들어진 말이다.

■ 확찐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활동량이 급감해 살이 ‘확 찐자’가 됐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이다.

■ 코로나 비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외출 자제와 재택근무 증가로 사람들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단기간에 살이 찐 것을 의미한다.

■ 집콕

‘집에 콕 박혀 있다’에서 집과 콕을 합성해 만든 말이다. 한마디로 어디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 박혀 무언가를 한다. 비슷한 말로 방콕(방에 콕 박혀 있다)도 있다.

■ 집콕족

비말감염 등으로 이뤄지는 코로나19의 특성상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집안에서만 머무르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생겨난 신조어이다. 말 그대로 집 안에 콕 박혀 머무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집콕 챌린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말한다.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상황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집관

스포츠팬들이 경기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을 뜻하는 직관(직접 관람)에 ‘집’이 결합된 신조어로, (스포츠 경기 등을) 집에서 관람한다’는 뜻이다. 이는 코로나19로 각종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면서 생긴 표현이다.

■ 휘게 라이프(Huggy Life)

덴마크·노르웨이어 휘게(Hygge)는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말이다. 휘게(Huggy)와 라이프(Life)의 합성어이다. 내 가족, 친구, 동료 등 집단을 중심으로 일상 속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찾는 생활방식을 말한다.

■ 이시국여행

‘이런 시국에 여행을 가느냐’는 뜻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행 자제 분위기가 일고 있음에도 이러한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을 간 사람을 비꼬는 표현이다.

■ 돌밥돌밥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초중고교의 잇따른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시행으로 자녀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부들의 상황을 반영한 말이다.

■ 나죽집산

코로나19 때문에 (나)가면 (죽)고 (집)에 있으면 (산)다는 뜻의 신조어이다.

■ 공채포비아

공개 채용의 줄임 말인 ‘공채’와 공포증(Phobia)의 합성어로서, 취업 시장에서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신조어이다. 채용 시즌만 되면 극심한 불안감에 구직 활동을 피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 금(金)스크=골든 마스크(Gold Mask)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생겨난 말이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 가격도 높아 금처럼 귀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마기꾼

마스크와 사기꾼을 합친 말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쓴 상태에서 상상의 얼굴과 완전히 다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현실을 유머 있게 표현한 것이다.

■ 스펀데믹(Spendemic)

코로나19 시대의 과잉 소비를 뜻하는 신조어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야외 활동은 줄었으나 집안에서의 생활이 늘면서 나타나는 과소비 현상을 가리킨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행이나 외식 관련 소비는 줄어든 반면 배달음식 주문이나 홈트, 인테리어 용품 지출은 늘어나는 추세를 비유한 것이다.

■ 큐코노미(Doomscrolling)

‘격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 ‘Quarantine’의 앞글자 Q에 ‘Economy(이코노미, 경제)’를 합성한 말로,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및 봉쇄 조치 이후 변화된 경제상을 뜻하는 신조어다.

■ 동학개미 운동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 시장에서 등장한 신조어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인 상황을 1894년 반외세 운동인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이다.

■ 발콘쟁어

발코니(Balkon)와 가수(Sanger)의 합성어로, 사회적 거리두기 속 발코니에서 노래하며 사람들을 위안한 사람을 말하는 독일 신조어.

■ 산스장

산과 헬스장의 합성어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내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등산로에 설치된 운동기구로 운동을 한다는 것을 말함.

■ 공스장

공원과 헬스장의 합성어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헬스장을 못 가게 될 때 운동기구가 비치된 인근 공원을 찾아 운동 욕구를 푸는 것을 말함.

■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휴가를 멀리 가지 않고 집 혹은 집 근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회현상을 일컫는 용어로, 여행이나 모임 대신 집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이다. ‘머물다 스테이(stay)와 휴가 베케이션(vacation)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 코로나 케이션

코로나19와 방학(Vacation)의 합성어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들의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된 기간을 방학에 빗대 붙여진 신조어이다.

■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욱 가중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말이다.

■ 코로노미 쇼크(Coronomy shock)

코로나(코로나19)와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의미한다.

■ 코비디어트(Covidiot)

코로나19의 영어 명칭인 Covid-19의 코비드와 Idiot(바보)를 합친 말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행동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 코비디보스(Covidivorce)

코로나19(Covid)와 이혼(divorce)의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확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혼이 증가한 것 반영한 신조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혼율이 늘면서 해당 신조어가 등장했다.

■ 코파라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해 포상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는 방역수칙 미준수 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위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신고포상제’ 시행에 따라 등장했다.

■ 돔스크롤링(Doomscrolling)

암울한 뉴스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뜻하는 신조어로, 코로나19 시대의 우울한 사회 분위기와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 등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어 2020년 뉴욕타임지(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가 꼽은 올해의 단어에 포함되기도 했다.

■ 압슈탄트비어

거리(Abstand)와 맥주(bier)의 합성어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펍 등이 운영을 하지 않아 거리에서 맥주를 마셔야 하는 현실을 뜻하는 독일 신조어.

■ 인스피리언스족(Insperience)

집안을 뜻하는 'Indoor'와 경험을 뜻하는 'Experience'의 합성어로, 밖에서 즐기던 경험을 집안이나 개인생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로 꾸며 놓고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 임펜 나이트(Impfen Neid)

독일어로 접종하다는 뜻을 가진 Impfen 와 부러움을 뜻하는 Neid 의 합성어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 캠린이

캠핑(camping)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이제 막 캠핑을 시작한 초보자를 뜻함.

■ 코돌이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치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국회의원들을 말한다.

■ 코로나 앙스트(Corona Angst)

Corona 와 Angst(불안)의 합성어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의미한다.

■ 코로니얼

Corona 와 Millennial 의 합성어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태어난 아이를 의미한다.

■ 코로닉(Coronic)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를 일컫는다.

■ 코백스(Covax)

세계백신연합(GAVI),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이 운영하는 백신공급기구를 말한다.

■ 호모 마스크스(Homo Maskcus)

마스크를 쓴 신인류라는 신조어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면서 어디를 가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면서 발생하게 된 신조어이다.

■ 웨비나(Webinar)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의 웹상에서 행해지는 세미나를 말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마이크나 전화를 이용해 강사와 참석자간에 실시간, 양방향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기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쉽게 웨비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 개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시·공간의 제약도 피할 수 있다. 우리말로는 '화상 토론회'라고 한다.

■ 언택트 수업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여 수업하는 것을 말한다.

■ 온라인 개학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를 거듭한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교사와 학생이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엄마 개학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부모가 초등학생 원격수업 로그인, 출석 체크부터 과제까지 모두 도와 주어서 생긴 신조어이다.

■ 흡살뭉죽

(흡)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 랜선운동

코로나19 시대에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운동으로 자신의 의지와 취향에 따라 운동 시간과 장소와 종목을 정하여 운동하고 이를 온라인 랜선으로 인증하는 방식의 운동을 말함.

● 이달의 교회소식

1. 성탄축하제 - 12월 24일 오후6시
2. 성탄절예배 - 12월 25일 오전11시
3. 교회학교 졸업예배 - 12월 26일 오후6시
4. 장학금수여식 - 12월 26일 오후6시
5. 송구영신예배 - 12월 31일 오후11시30분

● 공지사항

1. 12월 생활실천표어 - 네 삶을 준비하라
2. 12월 신앙서적 -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

● 이달의 교우소식

1. 고3학생 대학합격 - 기도합시다
* 유영민 유진경 유진희 이연우 장원준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윤경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